

감염병 발생 초기의 언론보도 연구: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진명지**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강사)

박경숙***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본 연구는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를 포함한 5종의 감염병 발생 후 초기 한 달간의 한국 언론보도의 내용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조선일보〉, 〈한겨레〉, 〈SBS〉, 〈KBS〉 4개 언론사이고 분석기사는 총 2,549건이다. 연구 결과, 기사 심층성은 언론사 모두 대응분석(1,309건, 42.5%)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원인분석(379건, 12.3%)이 가장 적었다. 또 각 언론사들의 취재 심층성은 일반기자(2,005건, 76.8%) 유형이 가장 많았고, 전문기자는 262건(10%)으로 다소 적은 수치였다. 보도 사실성을 보면, 신문사와 방송사 모두 사실 중심적인 기반에 두고 보도하고자 하였다. 보도 방향성으로는 중립적인 논조의 보도가 2,22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인 논조(32건, 1.3%)보다 부정적인 논조(290건, 11.4%)의 기사가 더욱 많았다. 정보원 유형에서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1,259건, 31.1%)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한국 전문가(615건, 15.2%)가 뒤

* 이 연구는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 bestjmj27@naver.com, 제1저자

*** pksuk@jejunu.ac.kr, 교신저자

를 이었다.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 프레임(1,489건, 34.2%)이 가장 많았고, 신문사와 방송사 모두 예방 프레임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신문사는 방송사에 비해 경제 프레임 유형 비중이 높았으며, 방송사는 설득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발생 초기의 언론 보도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안으로 볼 수 없기에 추측, 과장된 표현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촉구할 수 있는 보도 프레임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감염병, 범유행, 미디어 의존, 뉴스 프레임

1. 문제제기

본래 감염병 상황에서는 최초의 위기 신호가 감지된 이후, 대확산 직전 단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와 양상, 피해 지속 시기가 판이하게 달라진다(Chipidza *et al.*, 2021). 결론론적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은 중국이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나머지 팬데믹으로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초동 대응의 신속성과 적절함이야말로 대재난의 수습, 극복의 전체 과정 및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팬데믹의 초동 대응 과정에서 당연히 각국 정부와 유관 기관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세부 대응 방침, 대응 전략 등이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국 언론의 역할과 보도 태도 역시 강조된다(강소영, 2020). 언론은 국민에게 예방 행동을 포함하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통제에 대한 참여와 지지, 문제 해결 과정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 개입한다(Anderson *et al.*, 2020; Smith, 2006). 즉, 언론은 감염병 등을 포함한 심각한 대재난의 실상과 위험 상황, 대처 행동 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며 합리적인 안내자,

중재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언론이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 하는지에 따라 언론 수용자인 국민들의 위기 인식과 대응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이다(김동규, 2002). 특히, 감염병 발생 초기 단계에서 언론의 신속·정확한 보도는 더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맞는 전문 취재기자를 통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감염병 상황에 있어 언론 보도의 중요성과 함께 특화된 보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12년 12월에 감염병에 대한 과장 및 허위보도를 지양하고 국민 혼란을 줄인다는 목적 아래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가 공동으로 감염병 보도준칙¹⁾을 만들었다(미디어오늘, 2020). 그러나 그 주체가 특정 출입처 기자를 중심으로 작성되다 보니 전체 언론사에 배포되는 경로와 절차에 한계가 있어 널리 퍼지지 못하였다(유승관, 2014). 이후 반복되는 감염병 보도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재차 느껴 2020년 4월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감염병 보도준칙’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과 과장이 크기 때문에 공포조장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담지 말고 보다 전문성을 띤 감염병 보도를 지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언론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도준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1) 감염병과 관련된 기사 제목에 ‘패닉’, ‘대란’, ‘공포’, ‘창궐’ 등과 같이 감염병의 규모, 결과에 대한 과장된 표현과 증상에 대한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며,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추측 및 과장, 확대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감염병 증가율, 예상 사망자수 등의 비율을 제시함에 있어 실제 수치를 전달해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응이다(오윤경·류현숙·허준영 외 2인, 2020).

본 연구는 감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초기 한 달간의 언론보도 형태, 정보원, 보도 프레임 등을 살펴보고, 대응이나 전략 체계가 아직 미흡하고 어수선한 초기 시점에서의 언론의 올바른 보도 태도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혹은 해외에 유입됐던 1급 법정 감염병 가운데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 19와 관련한 최초 보도 이후, 한 달간의 기사를 수집하여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감염병 종류에 따라 그 크기와 영향력은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감염병에 따라 언론의 초기 보도에서의 차이점은 있었는지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로써 감염병 발생 시 언론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방향성 및 전략 도출을 목표로 한다.

2. 감염병과 미디어

1) 미디어 의존 이론과 위기인식

러빈저(Lerbinger, 1997)는 위기의 정의를 조직의 명성과 이익, 성장 등에 연관성을 갖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중심 가치로 설정하고 앞으로 생존에 위협이 있을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았다. 콤스(Coombs, 1999)는 위기를 개인이나 조직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과정으로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조직과 관련 공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예측하기 힘든 위협을 준다고 하였다(김영욱, 2006).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위기 상황을 알게 된다(전병규·조민경·임형수, 2017). 이러한 위기인식(risk perception)에 관한 연구는 거브너(Gerbner, 1969)가 문화지수와 문화배양모델을 제시한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중심으로 20여 년 이상 연구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 수용자가 매스 미디어 이용에 따라서 위협적인 사회 현실을 지각하는데 있어 자신과 타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위기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매스미디어에 반영되는 사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Signorielli·Morgan, 1990; 전병규·조민경·임형수, 2017). 위기인식은 다양한 정보소스로 형성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공중의 위기인식은 결과의 심각성과 관련이 큰 만큼 미디어 보도는 공중의 심각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송해룡·김찬원·김원제, 2014). 따라서 미디어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정치적·여가 활동 등과 같이 여러 사회적 과정을 전달해주는 정보 제공자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위험을 보도할 때 있어 미디어는 국민들에게 미칠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한동섭·김형일, 2005).

무엇보다 미디어의 발달로 과거 방송 3사(KBS, MBC, SBS)와 4대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가 주를 이뤘던 언론구조(백혜진, 2017)는 종이신문과, 방송사를 넘어 뉴스통신사 등 현재 인터넷신문사만 9,000개가 넘을 정도로 언론구조의 정보 흐름이 더욱 다양해졌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뉴스 이용 형태가 포털사이트로 대거 바뀌면서 2005년 이후부터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이용자 수의 규모가 인터넷언론사를 압도하기 시작하였다(김위근·황용석, 2020). 그리하여 오늘날 IT기반 서비스 형식의 포털 뉴스서비스까지 이르게 됐다.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뉴스콘텐츠 이용자들은 점차 포털을 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선택적 뉴스콘텐츠 소비 형태로 변화하였다(심재웅, 2014).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위기상황에서 주요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보가 시시각각 들어오다 보니 더욱 위협과 공포를 느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와 루머, 괴담 등이 속히 퍼져 나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문제도 있다. 다시 말해 자연재해, 전쟁, 질병, 대형사고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뉴스보도는 미디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재난과 관련한 인지적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노, 두려움, 동정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구교태, 2014).

이처럼 신종 감염병이라는 특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정확한 상황 판단과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미디어 이용을 통한 충족되는 욕구에 의존하면 할수록, 미디어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게 되는 역할이 더욱이 중요해지면서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Ball-Rokeach, 1985; 송해룡·김찬원·김원제, 2014). 즉,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충분한 이해를 하기 위해 결국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미디어 의존 이론의 주요 핵심 내용이다. 또한 미디어 효과를 사회와 수용자 그리고 미디어의 3원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았다. 이러한 3원적 관계에서 개인의 미디어 의존관계는 사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은 미디어에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디어의 효과로 볼 수 있는 인지와 정서, 행동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용자가 자신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디어에 의존하는 관계를 미디어에 대한 개인의 ‘의존관계’로 개념화하였다(Ball-Rokeach · Defleur, 1976).

2) 위험보도에서의 심층성과 사실성

보도의 심층성이란 곧 ‘보도의 깊이(depth of reporting)’로 위험보도에서는 특정 사안의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그 경과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면서 확보되게 된다. 즉, 체계화된 취재 방법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실을 전달하는 각종 보도 기법에 따라 깊이 있는 정보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Altschull, 1984). 재난과 재해 등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언론보도의 심층성은 뉴스의 현저성과 함께 사안의 사회적 중요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정보전달의 차원을 넘어 사회 차원의 변화와 발전, 대응 등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유진술, 2015).

심층성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하위개념들을 개발하였다. 먼저 기사유형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는 대표적인 심층성을 파악하는 요소이다. 반허스트와 무츠(Barnhurst · Mutz, 1997)는 사건 중심 보도(event-centered coverage)와 분석 중심 보도(analysis-centered coverage)를 심층성의 기준틀로 사용하였다. 특히 단순 보도는 선정적이거나 인간적 흥미 위주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남재일, 2005).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언론의 단순 취재 관행과 짧은 기사 길이, 적은 취재원 등을 특징하며 정보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유선영, 1995; 이재경, 2006; 남재일, 2005). 이에 반해 분석적이고 심층적인 보도의 경우 공신력 있는 정보원의 정보와 자료 등을 함께 다룸으로써 보도의 깊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기자의 전문성도 기사의 심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환경문제, 재난, 재해, 감염병 보도 등과 같이 전문성을 더욱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과학전문기자의 전문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하고 심층적인 보도를 해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 정보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곧 심층성의 정도를 파

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리치(Rich, 1994)는 인물정보, 기록자료, 온라인 출처 등으로 정보원을 구분한 바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인물 및 자료를 모두 정보원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박성희, 2004; 박재영·이완수, 2007).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하위개념들을 참고하여 기사의 유형, 취재 방식 및 정보원 요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초기 언론보도에 대한 심층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보도의 사실성이다. 객관성(objectivity), 공정성(fairness)과 함께 기사 정보의 사실성은 기자 직업윤리의 주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제재의 핵심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자들이 이른바 ‘팩트(fact)’를 중요시하는 현실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송용희, 2005). 특히나 감염병과 같은 중대한 위험 상황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와 같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언론학자들 역시도 뉴스 보도에 있어 사실성의 의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언론학자들은 사실성을 객관성의 핵심 요소로 보고, 기자들이 취재활동이나 기사작성에 있어서 사실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를 밝혀내는데 주력해왔다(송용희, 2005). 예컨대 터크만(Tuchman, 1972)은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많은 팩트의 나열, 인용부호의 사용, 서로 다른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구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반 다이크(Van Dijk, 1988)는 보도가 기사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기사의 목적은 독자들이 기사를 믿을만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으로 기사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 기자들은 직접 취재, 인용 및 숫자의 사용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즉, 기자가 직접 관찰한 것이라 주장하거나 사안과 관련된 인물을 인용하기,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기사의

사실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직접 취재가 결국 정보원이 기자 자신임을 밝히는 것이며 숫자의 사용 역시 대부분 통계적 자료에 기초한 것임을 고려할 때, 기사의 사실성에는 공신력이 높은 출처의 인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험보도에 있어 정확한 정보원 및 출처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보를 서술하였는지, 정확한 출처보다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를 서술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사의 사실성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김영옥·이현승·장유진·이혜진, 2015).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한 후 한 달간의 언론보도가 공식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인지, 비공식 자료를 통한 추측과 전망을 기반으로 한 기사인지를 파악하여 사실 중심적 보도와 추측·예측 중심적 보도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3) 감염병 뉴스 보도 프레임

언론은 위기를 증폭시키거나 약해지게 하는 것은 물론, 여론의 방향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성하는지에 따른 틀 짓기가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Hallahan, 1999). 언론은 보도를 함에 있어 단순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정보 제공을 하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 혹은 의미를 담기도 한다(박기수, 2011). 뉴스 프레임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용자들에게 어떠한 현실의 상을 전달하는지와 수용자들이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즉,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언론이 어떤 틀(frame)로 보도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며 특정한 관점과 시각에서 이뤄지는 언론 보도의 경우 뉴스를 접하는 수용자들에게 본 사건에 대한 이해와 행동에 폭넓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임연희, 2015). 결국 프레임이라는 것은 여론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에게 관련 이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이슈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중심 견해라고 정의되어진다(Gamson, 1992). 나아가 뉴스 보도 논조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명하게 분석하기 위해 어떤 사안에 대해 긍정·부정·중립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도 하며 이는 곧 보도의 방향성, 태도로 볼 수 있다.

미디어는 거대한 자연 재해와 재난 등에 공포와 위기감을 조성하는 틀을 조성할 수도 있고,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안도시키는 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즉, 뉴스가 어떤 이미지와 어떤 틀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건에 대한 공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을 사용하는가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오누리, 2011).

감염병이라는 것은 의료관련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서비스 산업과 노동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경제적 붕괴를 야기하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WHO, 2005). 무엇보다도 이를 공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언론의 신속한 정보전달은 상당히 중요하다. 공중들은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더욱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원천으로 생각하며 특히 언론보도 형태로 전달되는 질병 정보에 대해 공신력을 갖게 된다(최은비·김효숙, 2011). 공신력 있는 언론을 통해 메시지가 보도되어 전달되는 그 자체만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우지숙·최정민, 2015). 또한 감염병이라는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론은 위기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에게 해결 방안을 촉구(R. A. Edwards, 2002) 하기도 하며,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의 발표 혹은 정부를 취재원, 정보원으로 여겨 보도한다. 이러한 감염병 발생 초기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의 발표가 곧 여론 및 쟁점화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서의 정보원은 기사의 사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사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자는 쟁점이 되는 사건에 대한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해 사건의 정보를 정보원으로부터 취재해 재구성한다. 프레임은 기자와 정보원이 상호작용하여 재구성하는 현실이자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텍스트이다. 즉, 기자가 어떤 정보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기사의 프레임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자가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려 하는가에 따라 사용할 정보원 역시 달라질 수 있다(Shoemaker & Reese, 1995). 따라서 프레임에 대한 연구의 경우 정보원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주요 역할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언론은 감염병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감시권 역할은 물론 주요 기관들을 견제하고 정부와 병원 등 주요 주체들의 위기 대응을 검증해야 한다. 셋째,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양정혜, 2010). 즉, 언론의 영향력이 큰 만큼 언론의 혼란이 곧 사회적 혼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손영준·홍주현, 2011).

현재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개인들이 이슈를 제기하고 독자적인 의제가 사회의제로 형성되는 순환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이슈 관여도가 높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 등에서 언론 보도는 이슈의 중요도를 인지하게 되고 어떠한 시각으로 현 상황을 봐야 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감염병 확산처럼 즉각적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언론이 정보전달은 물론, 사회전반의 확산 혹은 재확산 등에 있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손영준·홍주현, 2019). 이처럼 언론 보도에서 어떠한 시각과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제시했느냐에 따라 정부의 위기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부의 위기 이슈를 확산 시킬 수도 있다. 위기 발

생이 일어날 때 정부와 국민, 언론의 관계는 상호작용을 하며 위기를 악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데도 각기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정부가 어떻게 위기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다면 해당 언론사가 국민들로 하여금 전달하는 메시지의 수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박경숙·이관열, 2013).

최근 20년 동안 정부에서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어떻게 컨트롤 타워가 되어 발생 초기의 상황을 지휘하느냐에 따라 감염병의 사태와 전개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대유·박재희, 2017). 이처럼 정부의 대응체계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기도 불신하기도 하며, 언론에서 비취지는 정부의 모습에 따라서도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3)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 선행연구

감염병 언론보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미디어가 감염병과 같은 질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론학과 보건학 분야에서 이뤄졌다. 특히 헬스커뮤니케이션과 헬스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질병과 관련한 연구는 대중의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뉴스 효과, 감염병 보도에서 나타나는 특성 등을 중심으로 보고되어 왔다(송해룡·조항민, 2015).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느냐이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생명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정보와 불안감 조장보다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예방법에 대한 의학적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간의 연구들(김옥태·김규찬, 2010; 주영기·유명순, 2011; 박기수·이귀옥·최명일, 2014; 손달임, 2020)을 보면, 언론의 감염병 보도가 감염병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예방법을 알리는 것보다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내용은 신문과 방송보도 연구 모두에서 나타났고,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재난보도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적인 의제의 공론화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희봉·이연수·이해수, 2021). 또한 단순히 중계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건강과 관련한 중대한 위기를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중의 참여 유도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 및 대책 마련과 같은 의제 형성에는 부족한 언론보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박이스리, 2021).

먼저 수용자 중심으로 신종플루 보도를 살펴본 김옥태·김규찬(2010)의 연구에서는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를 통해 정보습득 보다는 공포를 더 많이 느낀다고 나타났으며, 박기수·이귀옥·최명일(2014)의 연구에서는 불안감을 촉발시키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 반면에 ‘안전’, ‘의료진’과 같은 키워드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문기사 프레임을 통해 신종플루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 본 주영기·유명순(2011)과 박이스리(2021)의 연구에서는 예방법 및 대책 등의 예후 프레임보다 건강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진단 프레임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의 참여와 협조, 지지를 유도하는 예후프레임과 동기 프레임의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하여 방송뉴스보도를 분석한 송해룡·조항민(2015)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통계, 숫자, 심각성 등을 통해 위험을 강조하는 ‘위험 프레임’이 많이 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국민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복되는 사망자수 보도, 과장된 표현 등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다. 감염병 보도에 있어 기자의 전문성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의 선행연구(김성진·박경우, 2009; 유재웅·조윤경, 2012)에서는 여러 차례 재난보도에서의 전문기자 보도비중이 낮고, 우리나라와 해외 정부 및 기관 등에 한정된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용(2016)의 연구를 보면 과거 메르스 발생 당시에 언론은 정부와 기업, 의료기관 등과 같은 엘리트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나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며 결과적으로 취재원에게 의존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보니 감염병 상황에서 기자의 전문성은 더욱이 사라지고, 단순 전달자에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목정민·진달용(2014)의 연구에서는 일본 방사능 물질 유입과 같이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취재 할 때 정부와 같은 공식 정보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박희봉·이연수·이해수(2021)의 연구에서도 감염병 상황에 있어 지나치게 정부 및 관련 기관, 지자체 정보원에 의존하면 다양한 사회적 요소와 의견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정의철(2022)과 안도현(2022)의 연구에서도 감염병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언론은 적극적으로 해결책과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해결지향’ 관점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문제 자체만을 나열하고 비판하는 익숙하고 반복된 보도 패턴에서 벗어나 문제를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켜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문제해결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보도의 관점인 것이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이 높은 감염병과 같은 상황에서 언론은

속보와 특종 경쟁, 선정적 보도 관행 등을 탈피하고, 복수의 전문가의 의견과 확진자, 격리자, 사망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을 듣고 대안과 해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초기 확산 및 초동 대응과정에서 한국 언론보도 특성이 어떠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우려와 혼란을 유발했던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를 포함한 4종의 감염병 발생 후 초기 한 달간의 한국 언론보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글로벌 대재난 발생 후 초동 대응 과정의 전략적 중요성과 효과, 극복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만을 대상으로 하면 분석 내용의 타당성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포함한 5종 감염병 보도에 대한 보도 심층성(기사 심층성, 취재 심층성), 보도 사실성, 보도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 등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가치를 심화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는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1-1. 감염병별로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2-1. 감염병별로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2) 분석대상

한국 주요 일간지 중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지면 보도를, 한국 방송 뉴스에서는 KBS의 뉴스9, SBS의 뉴스8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종합일간지 가운데 가장 많은 발행부수와 구독률을 보유하고 있는 보수적 논조의 조선일보와 국민주소유방식을 갖고 있는 진보적 논조의 신문인 한겨레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보다 다양한 보도 기사를 통해 여러 가지 해석적 측면이 가능한 분석을 하기 위함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보수적, 진보적 성향의 대표적 언론사로 명칭 되고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이들 신문사의 이념적 또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박주현, 2007).

방송사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난주관방송사이자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공영방송사 KBS와 이와 다른 성격의 민영방송 SBS의 저녁뉴스 기사를 선정하였다. 이는 양 방송사가 지상파방송사로서 각각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이화행, 2012), 공영방송인 KBS와 민영방송인 SBS를 비교함으로써 감염병 보도에 대한 방송사별 프레임과 보도태도를 관찰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오누리·김은이, 2012).

조선일보와 한겨레 지면 기사를 살펴보기 위해 기사 검색은 한국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원문을 제공하는 아이서퍼(www.eyesurfer.com)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의 경우 조선일보와 한겨레 모두 아이서퍼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가 없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의 지면기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사스’

감염병 발생 초기의 언론보도 연구: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를 중심으로

‘SARS’, ‘급성호흡중후군’ 키워드 검색 후 기사를 찾았다. 신종플루와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는 아이서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키워드 검색을 하였다. 신종플루는 ‘신종인플루엔자’, ‘신종플루’로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메르스는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중후군’으로 코로나19는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코로나19’로 검색하였다. 그 후 검색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감염병 보도 기사와 관련이 있는 기사만을 선별하였다. 본 키워드가 제목 혹은 내용에 나와 있지만 기사 내용이 감염병과 관련이 있지 않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방송 뉴스인 KBS 뉴스9(www.news.kbs.co.kr)와 SBS 뉴스8(www.news.sbs.co.kr)에서 관련 뉴스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각 뉴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해당 분석기간 설정을 한 후, 뉴스 다시보기와 뉴스 스크립터 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관련된 기사만을 선별하였다. 이와 같이 각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해 선별한 감염병 관련 기사는 <표 1>과 같다.

<표 1> 감염병별 언론보도 분석건수

| 구분 | 병명(건) | | | | | |
|------|-------|-----|------|-----|-------|-------|
| | 전체 | 사스 | 신종플루 | 에볼라 | 메르스 | 코로나19 |
| 조선일보 | 709 | 116 | 43 | 29 | 304 | 217 |
| 한겨레 | 553 | 62 | 33 | 17 | 228 | 213 |
| KBS | 643 | 64 | 55 | 12 | 288 | 224 |
| SBS | 644 | 59 | 55 | 8 | 255 | 267 |
| 합계 | 2,549 | 301 | 186 | 66 | 1,075 | 921 |

3) 분석기간

신종감염병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 공중은 미디어의 보도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안의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언론 보도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그 내용에 의해 심각성을 이해하게 된다(Glik, 2007). 특히 감염병과 같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추후 예방은 물론 사후 대처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기간을 감염병별 최초 보도 이 후 한 달 간으로 보았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감염병별 언론보도 분석기간

| 병명 | 기간(1개월) |
|----------|-----------------------------|
| 사스 | 2003년 4월 3일 - 2003년 5월 2일 |
| 신종플루 | 2009년 5월 2일 - 2009년 6월 1일 |
| 에볼라바이러스병 | 2014년 7월 31일 - 2014년 8월 30일 |
| 메르스 | 2015년 5월 20일 - 2015년 6월 19일 |
| 코로나19 | 2020년 1월 9일 - 2020년 2월 8일 |

4) 연구방법

감염병 보도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을 이용하여 송해룡·조항민(2015)의 분석유목을 바탕으로 보도 심층성, 보도 사실성, 보도 방향성, 정보원, 프레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한 분석유목은 <표 3>과 같다.

먼저, 보도 심층성이란 취재 보도의 깊이로 객관성과 상호보완적

감염병 발생 초기의 언론보도 연구: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표 3〉 감염병별 언론보도의 보도심층성·보도사실성·보도방향성 분석유목

| 대/중분류 | 유목 | 세부내용 |
|-----------|-------------|---|
| 기사 심층성 | ① 사건발생 | 확진자 발생, 감염 사례, 확진자 퇴원 등과 같이 단순 사건 소개 |
| | ② 원인분석 |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소강 원인과 치사율에 대한 논의 |
| | ③ 영향분석 | 감염병이 현재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영향력 |
| | ④ 대응분석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 및 기관, 기업, 개인 등의 대응책(대응책에 대한 문제점 제시도 함께 포함) |
| 보도 심층성 | ① 전문기자 |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자 (예: 의학기자, 군사전문기자 등) |
| | ② 일반기자 | 전문성을 지니지 않은 일반기자 |
| | ③ 특파원 | 해외에 파견된 취재기자 |
| | ④ 스튜디오 인터뷰 | 뉴스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앵커 인터뷰 형식 |
| 보도 사실성 | ① 사실 중심적 | 공식적인 자료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기반으로 분석 |
| | ② 추측·예측 중심적 | 비공식 자료와 추측과 전망을 기반으로 분석 |
| 보도 방향성 | ① 긍정 | 정부(해외정부)와 유관기관의 빠른 대처와 감염병 관리시스템에 대해 신뢰한다는 등의 긍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인 경우 |
| | ② 중립 | 상기의 두 논조가 지배적이지 않고 유사하게 배치된 경우 |
| | ③ 부정 | 정부(해외정부)와 유관기관의 빠른 대처와 감염병 관리시스템에 대해 신뢰한다는 등의 긍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인 경우 |

관계를 맺는다(김봉덕, 2009). 이러한 보도 심층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사의 심층성과 취재 심층성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기사 심층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발생’, ‘원인분석’, ‘영향분석’, ‘대응 분석’이라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취재 심층성은 ‘전문기자’, ‘일반기자’, ‘특파원’, ‘스튜디오 전문가 인터뷰’로 나눠 살펴보았다. ‘전문기자’는 보건, 의학, 과학, 경제 등 특정분야에서 전문지식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해설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의 전망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사를 말한다.

보도 사실성에서는 한국 언론보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 보도에 있어 얼마나 사실성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사가 공식적인 자료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둔 ‘사실 중심적’인지, 비공식 자료와 추측과 전망을 기반으로 한 ‘추측·예측 중심적’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언론이 어떠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슈를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보도의 방향성은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조경숙·한균태, 2010). 본 연구에서 보도의 방향성은 제목(headline)과 리드(lead)문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여 판별하였다. 대부분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제목과 리드문장에서 기사의 전체적 방향이나 태도가 집약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고영철, 2012). 만약 기사의 내용에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는 그 비중이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를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다음은 기사의 정보원이다. 뉴스의 정보원은 여론 전달을 위한 균형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여러 정보원에 근거한 뉴스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김도경·윤영민, 2015) 이와 더불어 확인 가능한 정보원은 독자가 기사에서 정보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목은영·이준웅, 2014). 그리하여 분석기사를 통

해 26개 항목(① 한국정부 및 지자체, ② 한국 전문가, ③ 세계기구, ④ 해외정부 및 지자체, ⑤ 세계시민, ⑥ 해외 전문가, ⑦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⑧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⑨ 한국 및 해외 언론, ⑩ 한국 및 해외 기업, ⑪ 시민단체·전국민주노총연맹, ⑫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⑬ 시민, ⑭ 자영업자, ⑮ 공항 관련 관계자, ⑯ 유학생, ⑰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⑱ 공공기관, ⑲ 한국 및 해

〈표 4〉 프레임 분류 및 정의

| 분류 | 정의 |
|------------|--|
| ① 정책 프레임 | 감염병 관련 정부 정책, 정부지원 등 |
| ② 정보 프레임 | 감염병 발생동향 및 방역대책, 감염병 전염 경로 정보 등 |
| ③ 경제 프레임 |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 집단, 정부 조직 등의 경제적 변화 |
| ④ 사회영향 프레임 | 한국 및 국제사회에 미친 사회적인 영향과 감염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 연기 등 |
| ⑤ 갈등 프레임 | 법정분쟁, 도덕적 비난 등 갈등 묘사 |
| ⑥ 책임 프레임 | 정부의 감염병 방역 대책 미흡, 방역 허점 등 |
| ⑦ 설득 프레임 | 생활 속 방역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 등 |
| ⑧ 공포 프레임 | 감염병의 심각성 및 위협 강조, 공포 조장 등 |
| ⑨ 예방 프레임 |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과 예방 캠페인 부각을 통한 감염병 예방행동권고 |
| ⑩ 인간흥미 프레임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확진자, 의심자와 의료진의 노고 등을 다룬 내용 |
| ⑪ 희망적 프레임 | 감염병의 위협과 대유행이 잦아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보도, 확진자 감소, 백신 등과 같은 기술개발, 영업 및 수업재개 등 |

외 경찰, ⑳ 군 관계자, ㉑ 교육부 및 교육청, ㉒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㉓ 종교단체, ㉔ 법조계 관련자, ㉕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㉖ 기타)의 정보원 유목을 설정하였다. 기타 항목에는 세계수학자대회 대회조직위원회, 공무원 준비 인터넷 커뮤니티, 소방본부, 환경미화원, 간병인 중개업체, 관광버스기사, 통역사, 방과후 교사, 아파트 경비원, 요양병원 관계자, 프로농구 연맹, 복싱 국가대표 감독, IOC, 우체국택배 노동자를 포함하였다.

다음은 프레임에 대한 분석유목이다. <표 4>와 같이 세메트코와 벨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의 프레임 분류인 ‘갈등 프레임’, ‘책임 귀인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에 선행연구(박경숙, 2002; 송해룡 · 조항민, 2015; 이민규 · 이예리, 2012)에서 사용된 13개의 프레임을 재구분하여 유사한 맥락을 내포하고 있는 프레임끼리 범주화하였다.

5)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다중응답 교차분석 포함)을 실시하였다. 한 셀의 기대 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 20%를 넘는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코딩 작업은 연구자와 박사학위소지자 1명으로 총 2명의 코더가 공동으로 하였다. 만약 코딩 진행과정에서 유형 분류 판별이 서로 다르거나 다소 난해한 기사자료가 발생할 경우, 연구자와 코더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결정하였으며, 본격적인 코딩 전 사전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였다. 또한 코더 간 신뢰도 검증에도 2명의 코더가 참여하였다. 분석 대상 보도 자료 및 언론 보도의 10%를 대상으로 홀스티(Holsti) 계수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① 보도시기 1.0, ② 보도 심층성

0.83, ③ 보도 사실성 0.91, ④ 보도 방향성 0.94, ⑤ 정보원 0.98, ⑥ 프레임 0.90으로 확인되었다.

4. 분석결과

1) 감염병 언론보도의 특성

연구문제 1.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는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표 5〉 언론사별 기사 심층성

| 기사 심층성 | 조선일보 | 한겨레 | KBS | SBS | 전체 |
|-----------|-----------------|-----------------|-----------------|-----------------|-------------------|
| 사건발생 | 166(19.7) | 116(16.9) | 145(19.0) | 195(24.7) | 622(20.2) |
| 원인분석 | 104(12.3) | 92(13.4) | 95(12.4) | 88(11.1) | 379(12.3) |
| 영향분석 | 214(25.4) | 179(26.1) | 188(24.6) | 192(24.3) | 773(25.1) |
| 대응분석 | 359(42.6) | 298(43.5) | 336(44.0) | 316(39.9) | 1,309(42.5) |
| 합계 | 843(100) | 685(100) | 764(100) | 791(100) | 3,083(100) |

Fisher's exact test: $p > .05$

감염병 초기 언론의 보도 특성을 먼저 기사 심층성으로 파악한 결과, <표 5>와 같이 조선일보, 한겨레, KBS, SBS 모두 대응분석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건수는 총 1,309건(42.5%)이었다. 즉,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 및 기관 등의 대책과 정부 방역의 문제점 등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영향분석이 773건(25.1%), 사건발생이 622건

(20.2%), 원인분석이 379(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현재 및 미래에 미칠 영향과 단순 확진자 발생 및 방역 동향 등의 기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경로와 이유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한 기사는 다소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대응분석이 359건(42.66%), 영향분석이 214건(25.4%), 사건발생이 166건(19.7%), 원인분석이 104건(12.3%)이었다. 한겨레는 대응분석이 298건(43.5%), 영향분석이 179건(26.1%), 사건발생이 116건(16.9%), 원인분석이 92건(13.4%)이었다. KBS는 대응분석이 336건(44%), 영향분석이 188건(24.6%), 사건발생이 145건(19%), 원인분석이 95건(12.4%)이었다. 마지막으로 SBS는 대응분석이 316건(39.9%), 사건발생이 195건(24.7%), 영향분석이 192건(24.3%), 원인분석이 88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언론사별 취재 심층성

| 취재 심층성 | 조선일보 | 한겨레 | KBS | SBS | 전체 |
|-----------|-----------------|-----------------|-----------------|-----------------|-------------------|
| 전문기자 | 76(10.4) | 78(13.2) | 56(8.7) | 52(8.1) | 262(10.0) |
| 일반기자 | 567(77.8) | 439(74.0) | 478(74.0) | 521(80.9) | 2,005(76.8) |
| 특파원 | 86(11.8) | 74(12.5) | 94(14.6) | 70(10.9) | 324(12.4) |
| 스튜디오 인터뷰 | 0(0.0) | 0(0.0) | 18(2.8) | 3(0.5) | 21(0.8) |
| 합계 | 729(100) | 591(100) | 646(100) | 646(100) | 2,612(100) |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으로 취재 심층성을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취재기자 유형은 일반기자가 2,005건(76.8%)으로 가장 많았고, 특파원이 324건(12.4%), 전문기자가 262건(10%)이었다. 통계적으로 언론사별 취재 심

층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일반기자와 전문기자가 함께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인터뷰의 경우, 방송사 KBS와 SBS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KBS가 18건(2.8%), SBS가 3건(0.5%)으로 나타나 KBS가 SBS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감염병이라는 주제는 전문적 지식을 지닌 기자가 취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이지만 그간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일반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이 관행적이어서 일각에서는 기사 취재의 심층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높았다(송해룡·조항민, 2015).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염병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내용 전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문기자에 대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그간의 취재 관행이라 볼 수 있으면서도 과학적 지식과 판단, 근거를 갖고 보도해야 하는 감염병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문기자 양성, 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의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전문기자의 보도건수가 78건(13.2%)으로 가장 높았으며 SBS가 52건(8.1%)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히 알아보면, 조선일보는 일반기자가 취재한 보도건수가 567건(77.8%), 특파원이 86건(11.8%), 전문기자가 76건(10.4%) 순이었다.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일반기자 비율이 439건(74%)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전문기자가 78건(13.2%), 특파원이 74건(12.5%) 순으로 다른 언론사와 달리 전문기자 취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일반기자가 478건(74%), 특파원이 94건(14.6%), 전문기자가 56건(8.7%), 스튜디오 인터뷰가 18건(2.8%)이었다. SBS는 일반기자가 521건(80.9%), 특파원이 70건(10.9%), 전문기자 52건(8.1%), 스튜디오 인터뷰 형식이 3건(0.5%) 순으로 확인되었다.

보도의 사실성을 분석한 결과인 <표 7>과 같이 전체 보도 비율의

〈표 7〉 언론사별 보도 사실성

| 보도 사실성 | 조선일보 | 한겨레 | KBS | SBS | 전체 |
|-----------|-----------------|-----------------|-----------------|-----------------|-------------------|
| 사실 중심적 | 696(98.2) | 546(98.7) | 628(97.7) | 627(97.4) | 2,497(98.0) |
| 추측·예측 중심적 | 13(1.8) | 7(1.3) | 15(2.3) | 17(2.6) | 52(2.0) |
| 합계 | 709(100) | 553(100) | 643(100) | 644(100) | 2,549(100) |

Fisher's exact test: $p > .05$

98%에 달하는 것을 봤을 때 신문사, 방송사 모두 상당히 사실 중심적 기반에 둔 보도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기간이 감염병 첫 기사를 기준으로 한 달간을 살펴 본 만큼 감염병 초기 보도에서는 해당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사실상 방역 당국 등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도자료, 정례브리핑 등을 통한 기사작성이 많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겨레의 경우 사실 중심적 보도가 546건(98.7%)으로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BS의 경우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가 17건(2.6%)으로 다른 언론사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측·예측 중심적인 기사로는 관련 보건당국 또는 전문가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감염병이 발생한 나라의 시민, 유학생들의 현지상황에 대한 이야기만을 가지고 보도 하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주변 상인들의 추측성 인터뷰만을 그대로 다룬 보도들이 있었다.

언론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696건(98.2%), 한겨레는 546건(98.7%), KBS는 628건(97.7%), SBS는 627건(97.4%)으로 나타났으며 추측·예측 중심적인 기사는 조선일보가 13건(1.8%), 한겨레가 7건(1.3%), KBS가 15건(2.3%), SBS가 17건(2.6%)이었다.

〈표 8〉 언론사별 보도 방향성

| 보도 방향성 | 조선일보 | 한겨레 | KBS | SBS | 전체 |
|-----------|-----------------|-----------------|-----------------|-----------------|-------------------|
| 긍정 | 13(1.8) | 7(1.3) | 6(0.9) | 6(0.9) | 32(1.3) |
| 중립 | 607(85.6) | 470(85.0) | 577(89.7) | 573(89.0) | 2,227(87.4) |
| 부정 | 89(12.6) | 76(13.7) | 60(9.3) | 65(10.1) | 290(11.4) |
| 합계 | 709(100) | 553(100) | 643(100) | 644(100) | 2,549(100) |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은 보도 방향성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8>과 같이 한국 언론보도는 감염병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한 쪽 시각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적인 논조의 보도가 2,227건(87.4%)으로 가장 많았다. 중립적인 논조의 기사들은 대체적으로 감염병 발생 사례, 발생동향, 방역 대응, 정부 정책, 감염병 정보, 예방 수칙 등의 대한 기사들이 주를 이뤘다. 다음으로는 부정이 290건(11.4%), 긍정이 32건(1.3%)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논조의 경우 정부의 허술한 방역을 비판하거나 일관성 있지 않는 정부의 메시지로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을 지적, 코로나 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기사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의 경우,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당시 미국 보건당국의 미완성 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와 치료제 개발 추진에 따른 긍정적 평가 내용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확산 되던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발 빠른 대처 및 대응으로 감염병 위기에서 벗어났던 해외 정부 사례에 대한 기사 등이 있었다.

언론사별로 논조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조선일보는 중립적인 논조가 607건(85.6%)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논조가 89건(12.6%), 긍정적인 논조가 13건(1.8%) 순이었다.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논조의 보도가 470건(85%)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논조가 76건(13.7%), 긍정적인 논조가 7건(1.3%)으로 나타났다. KBS의 경

우 중립적인 논조가 577건(89.7%), 부정적인 논조가 60건(9.3%), 긍정적인 논조가 6건(0.9%)이었으며 SBS는 중립적인 논조가 573건(89%), 부정적인 논조가 65건(10.1%), 긍정적인 논조가 6건(0.9%)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립적인 보도가 많았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보도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감염병과 관련한 위기상황에서 언론이 분명한 입장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양비론적 보도를 하는 형태, 정부 대응의 미흡한 부분들을 제대로 짚어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은 감염병 보도에 있어서 언론보도의 정보원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9>와 같이 가장 많은 정보원으로 활용된 것은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259건(31.1%)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 전문가가 615건(15.2%),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362건(8.9%), 시민 270건(6.7%), 한국 및 해외 기업 184건(4.5%),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가 184건(4.5%), 한국 및 해외 언론 179건(4.4%), 세계기구가 154건(3.8%), 해외 전문가 146건(3.6%), 세계시민 130건(3.2%), 자영업자 113건(2.8%), 확진자 및 가족 73건(1.8%),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가 68건(1.7%),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61건(1.5%), 공항 관련 관계자와 교육부 및 교육청이 각각 41건(1.0%),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34건(0.8%), 공공기관 33건(0.8%), 유학생 23건(0.6%), 한국 및 해외경찰 22건(0.5%), 군 관계자가 19건(0.5%), 기타가 15건(0.4%), 시민단체가 12건(0.3%), 법조계 관계자 및 기부단체·봉사단체 관계자가 각각 6건(0.1%), 종교단체가 4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별로 정보원 유형을 비교해보면 조선일보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299건(2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한국 전문가 209건(17.6%), 해외정부 및 지자체 118건(9.9%), 한국 및 해외 언론 84건(7.1%), 한국 및 해외 기업 78건(6.6%), 시민 63건(5.3%), 세계기구 및 해외 전문가가 각각 53건(4.5%), 세계시민 36건(3.3%), 확진자 방문 기

감염병 발생 초기의 언론보도 연구: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형, 메르스,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표 9〉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 정보원 | 조선일보 | 한겨레 | KBS | SBS | 전체 |
|-----------------|-------------------|-----------------|-----------------|-----------------|-------------------|
| 한국정부 및 지자체 | 299(25.1) | 318(34.0) | 314(32.6) | 328(33.9) | 1,259(31.1) |
| 한국 전문가 | 209(17.6) | 144(15.4) | 129(13.4) | 133(13.8) | 615(15.2) |
| 세계기구 | 53(4.5) | 30(3.2) | 44(4.6) | 27(2.8) | 154(3.8) |
| 해외정부 및 지자체 | 118(9.9) | 84(8.9) | 80(8.3) | 80(8.3) | 362(8.9) |
| 세계시민 | 36(3.0) | 21(2.2) | 34(3.5) | 39(4.0) | 130(3.2) |
| 해외 전문가 | 52(4.4) | 38(4.1) | 27(2.8) | 29(3.0) | 146(3.6) |
|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 28(2.4) | 10(1.1) | 20(2.1) | 15(1.6) | 73(1.8) |
|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 37(3.1) | 33(3.5) | 57(5.9) | 57(5.9) | 184(4.5) |
| 한국 및 해외 언론 | 84(7.1) | 60(6.4) | 20(2.1) | 15(1.6) | 179(4.4) |
| 한국 및 해외 기업 | 78(6.6) | 52(5.6) | 28(2.9) | 26(2.7) | 184(4.5) |
| 시민단체 | 3(0.3) | 3(0.3) | 4(0.4) | 2(0.2) | 12(0.3) |
|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 16(1.3) | 11(1.2) | 21(2.2) | 20(2.1) | 68(1.7) |
| 시민 | 63(5.2) | 39(4.1) | 83(8.6) | 85(8.8) | 270(6.6) |
| 자영업자 | 30(2.5) | 21(2.2) | 26(2.7) | 36(3.7) | 113(2.8) |
| 공항 관련 관계자 | 6(0.5) | 6(0.6) | 16(1.7) | 13(1.3) | 41(1.0) |
| 유학생 | 3(0.2) | 1(0.1) | 8(0.8) | 11(1.1) | 23(0.6) |
|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 8(0.7) | 5(0.5) | 13(1.3) | 8(0.8) | 34(0.8) |
| 공공기관 | 7(0.6) | 10(1.1) | 3(0.3) | 13(1.3) | 33(0.8) |
| 한국 및 해외 경찰 | 8(0.7) | 1(0.1) | 5(0.5) | 8(0.8) | 22(0.5) |
| 군 관계자 | 6(0.5) | 2(0.2) | 5(0.5) | 6(0.6) | 19(0.5) |
| 교육부 및 교육청 | 11(0.9) | 19(2.0) | 6(0.6) | 5(0.5) | 41(1.0) |
|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 19(1.6) | 23(2.5) | 14(1.5) | 5(0.5) | 61(1.5) |
| 종교단체 | 1(0.1) | 1(0.1) | 2(0.2) | 0(0.0) | 4(0.1) |
| 법조계 관계자 | 5(0.4) | 1(0.1) | 0(0.0) | 0(0.0) | 6(0.1) |
|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 2(0.2) | 1(0.1) | 2(0.2) | 1(0.1) | 6(0.1) |
| 기타 | 8(0.7) | 0(0.0) | 2(0.2) | 5(0.5) | 15(0.4) |
| 합계 | 1,190(100) | 934(100) | 963(100) | 967(100) | 4,054(100) |

multiple coding

관 및 업체 37건(3.1%), 자영업자 30건(2.5%),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28건(2.4%),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19건(1.6%),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16건(1.3%), 교육부 및 교육청 11건(0.9%),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와 한국 및 해외 경찰, 기타가 각각 8건(0.7%), 공공기관 7건(0.6%), 공항 관련 관계자 및 군 관계자가 6건(0.5%), 법조계 관계자 5건(0.4%), 유학생 및 시민단체 3건(0.3%),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가 2건(0.2%)이었다.

한겨레의 경우도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318건(34%)으로 가장 많았는데, 비율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언론사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전문가가 144건(15.4%), 해외정부 및 지자체 84건(8.9%), 한국 및 해외 언론 60건(6.4%), 한국 및 해외 기업 52건(5.6%), 시민 39건(4.2%), 해외 전문가 38건(4.1%),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33건(3.5%), 세계기구 30건(3.2%),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23건(2.5%), 세계시민 21건(2.2%), 교육부 및 교육청 19건(2.0%),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11건(1.2%),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과 공공기관이 10건(1.1%), 공항 관련 관계자 6건(0.6%), 시민단체 3건(0.3%), 군 관계자 2건(0.2%), 유학생과 한국 및 해외경찰,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가 각각 1건(0.1%)이었으며 기타 항목은 없었다.

KBS는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314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전문가 133건(13.8%)이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와는 달리 시민 유형이 85건(8.8%)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80건(8.3%),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57건(5.9%), 세계기구 44건(4.6%), 세계시민 34건(3.5%), 한국 및 해외 기업 28건(2.9%), 해외 전문가 27건(2.8%), 자영업자 26건(2.7%),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21건(2.2%),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과 한국 및 해외 언론이 20건(2.1%), 공항 관련 관계자 16건(1.7%),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14건(1.5%),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13건(1.3%), 유학생 8건

(0.8%), 교육부 및 교육청 6건(0.6%), 한국 및 해외 경찰과 군 관계자 각각 5건(0.5%), 시민단체 4건(0.4%), 종교단체와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기타가 각각 2건(0.2%)이었으며 법조계 관계자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SBS 역시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328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전문가 133건(13.8%)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이 85건(8.8%), 해외정부 및 지자체 80건(8.3%),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가 57건(5.9%), 세계시민 39건(4.0%), 자영업자 36건(3.7%), 해외 전문가 29건(3.0%), 세계기구 27건(2.8%), 한국 및 해외 기업이 26건(2.7%),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20건(2.1%),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과 한국 및 해외 언론이 15건(1.6%), 공항 관련 관계자와 공공기관 13건(1.3%), 유학생 11건(1.1%),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와 한국 및 해외 경찰이 각각 8건(0.8%), 군 관계자 6건(0.6%), 교육부 및 교육청과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기타가 각각 5건(0.5%), 시민단체 2건(0.2%),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 1건(0.1%)이었으며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는 없었다.

신문사와 방송사의 언론보도 정보원 유형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한국 전문가 순의 비율까지는 동일했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경우 해외정부 및 지자체, 한국 및 해외 언론, 한국 및 해외 기업 순이었지만 방송사인 KBS와 SBS는 시민, 해외정부 및 지자체,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순이었다. 이는 신문사의 경우 해외와 관련된 정보원을 갖고 언론 보도를 한 부분이 많았고, 방송사는 한국과 관련된 정보원을 다소 많이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방송보도에서 시민,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의 관계자를 인터뷰 하는 형식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방송보도 특성상 현장 스케치성 보도 또는 인물 위주의 일회성 및 단순 보도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주요 정보원이 실질적으로 정

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신력 있는 유형인지, 단순 감염병 확진자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정보원인지를 제대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 자영업자, 확진자 및 가족,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등이 등장한 기사들을 살펴봤을 때, 그들이 제공하는 내용은 감염병 전반의 방역 및 예방에 대한 정보성 기사가 아닌, 확진자가 다녀 간 후 불안한 현재 주변 상황, 분위기 등을 전달하며 오히려 공포심을 조장하는 취지의 기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두 신문사의 정보원 유형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상위 6번째까지의 정보원 유형을 보면 두 신문사 모두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한국 전문가, 해외 정부 및 지자체, 한국 및 해외 언론, 한국 및 해외 기업, 시민 순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세계기구, 해외 전문가, 세계시민,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자영업자,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교육부 및 교육청,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와 한국 및 해외 경찰, 기타, 공공기관, 공항 관련 관계자 및 군 관계자, 법조계 관계자, 유학생 및 시민단체,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순이었고, 한겨레의 경우 해외 전문가,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세계기구,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세계시민과 자영업자, 교육부 및 교육청,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과 공공기관, 공항 관련 관계자, 시민단체, 군 관계자, 유학생과 한국 및 해외경찰,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 순이었으며 기타 항목은 없었다. 즉, 보수신문인 조선일보는 진보신문인 한겨레에 비해 세계기구, 세계시민,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을 많이 활용한 반면, 한겨레는 해외 전문가,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를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인 KBS와 민영방송 SBS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KBS는 한국

정부 및 지자체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전문가, 시민, 해외정부 및 지자체,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세계기구, 세계시민, 한국 및 해외 기업, 해외 전문가, 자영업자,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과 한국 및 해외 언론, 공항 관련 관계자,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유학생, 교육부 및 교육청, 한국 및 해외 경찰과 군 관계자, 시민단체, 종교단체와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기타 순이었으며, 법조계 관계자는 없었다. SBS 역시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전문가, 시민, 해외정부 및 지자체,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세계시민, 자영업자, 해외 전문가, 세계기구, 한국 및 해외 기업,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과 한국 및 해외 언론, 공항 관련 관계자와 공공기관, 유학생,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와 한국 및 해외 경찰, 군 관계자, 교육부 및 교육청과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기타, 시민단체,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순이었으며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는 없었다. 이처럼 공영방송 성격의 KBS는 민영방송 SBS에 비해 세계기구, 한국 및 해외 기업,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SBS는 KBS에 비해 세계시민, 자영업자, 해외 전문가, 공공기관, 유학생의 정보원 활용 비중이 많았다.

연구문제 1-1. 감염병별로 심층성, 사실성, 방향성, 정보원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1-1에 따른 감염병별로 언론보도의 특성 가운데 먼저 기사심층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 감염병 초기 발생 시 언론보도는 대응분석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건

〈표 10〉 감염병별 기사 심층성

| 기사 심층성 | 사스 | 신종플루 | 에볼라 | 메르스 | 코로나19 | 전체 |
|-----------|-----------------|-----------------|----------------|-------------------|-------------------|-------------------|
| 사건발생 | 74(19.6) | 89(34.8) | 15(19.2) | 239(19.3) | 205(18.1) | 622(20.2) |
| 원인분석 | 31(8.2) | 17(6.6) | 10(12.8) | 220(17.8) | 101(8.9) | 379(12.3) |
| 영향분석 | 108(28.6) | 71(27.7) | 27(34.6) | 226(18.3) | 341(30.1) | 773(25.1) |
| 대응분석 | 165(43.7) | 79(30.9) | 26(33.3) | 553(44.7) | 486(42.9) | 1,309(42.5) |
| 합계 | 378(100) | 256(100) | 78(100) | 1,238(100) | 1,133(100) | 3,083(100) |

Fisher's exact test: $p < .05$

수는 총 1,309건(42.5%)이었다. 이어 영향분석이 773건(25.1%), 사건발생이 622건(20.2%), 원인분석이 379(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감염병별 기사 심층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별로 나눠 살펴보면 사스 발생 당시 언론보도는 대응분석이 165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영향분석 108건(28.6%), 사건발생(19.6%), 원인분석 31건(8.2%)이었다.

신종플루 발생 시기에는 다른 언론사들과 달리 확진자 발생 및 감염 사례등과 같이 단순 사건보도인 사건발생이 89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응분석 79건(30.9%), 영향분석 71건(27.7%), 원인분석 17건(6.6%) 순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이슈가 있을 당시에는 영향분석이 27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대응분석이 26건(33.3%), 사건발생 15건(19.2%), 원인분석이 10건(12.8%)이었다.

메르스 발생 당시에는 대응분석이 554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사건발생(19.3%), 영향분석 226건(18.3%), 원인분석 220건(17.8%)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시기에는 대응분석이 486건(42.9%), 영향분석이 341건(30.1%), 사건발생이 205건(18.1%), 원인분석이 101건(8.9%)순이었다. 이처럼 감염병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감

염병 발생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혹은 방역 대책 및 대응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감염병이 현재 사회와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과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11〉 감염병별 취재 심층성

| 취재 심층성 | 사스 | 신종플루 | 에볼라 | 메르스 | 코로나19 | 전체 |
|-------------|-----------------|-----------------|----------------|-------------------|-----------------|-------------------|
| 전문기자 | 28(9.2) | 17(8.9) | 11(15.1) | 151(13.8) | 55(5.8) | 262(10.0) |
| 일반기자 | 200(65.4) | 143(75.3) | 49(67.1) | 905(82.4) | 708(74.9) | 2,005(76.8) |
| 특파원 | 78(25.5) | 30(15.8) | 13(17.8) | 42(3.8) | 161(17.0) | 324(12.4) |
| 스튜디오 인터뷰 | 0(0.0) | 0(0.0) | 0(0.0) | 0(0.0) | 21(2.2) | 21(0.8) |
| 합계 | 306(100) | 190(100) | 73(100) | 1,098(100) | 945(100) | 2,612(100) |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은 감염병 발생시에 취재 심층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한 결과이다. <표 11>과 같이 가장 많이 취재한 기자유형은 일반기자가 2,005건(76.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특파원이 324건(12.4%), 전문기자가 262건(10%), 스튜디오 인터뷰 21건(0.8%)이었다. 스튜디오 인터뷰의 경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발생 당시의 보도에서는 한 건도 없었고,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만 21건(2.2%)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감염병별 취재 심층성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감염병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사스 발생 당시 일반기자는 200건(65.4%), 특파원은 78건(25.5%), 전문기자는 28건(9.2%)이었다.

신종플루 발생 시기에는 일반기자가 143건(75.3%), 특파원 30건(15.8%), 전문기자 17건(8.9%)이었으며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이슈가 되

던 당시 보도에서는 일반기자가 49건(67.1%), 특파원 13건(17.8%), 전문기자 11건(15.1%) 순이었다. 메르스 발생 시의 보도에서는 일반기자 905건(82.4%), 전문기자 151(13.8%), 특파원 42건(3.8%) 순으로 일반기자에 대한 비중이 다른 언론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언론사들이 일반기자 다음으로 특파원의 취재 비율이 높았던 반면, 메르스 때는 두 번째로 전문기자의 비율이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일반기자가 708건(74.9%), 특파원 161건(17%), 전문기자 55건(5.8%), 스튜디오 인터뷰 21건(2.2%) 순이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종류에 상관없이 감염병 관련 보도에서는 일반기자가 취재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5종 감염병 중에서도 코로나19는 다른 감염병들에 비해 전문 기자 취재 보도 비율이 더욱 낮았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우 다른 4종 감염병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대대적인 규모로 확산되어 뉴스와 기사의 수량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제작됐지만, 전문 기자의 수는 이 같은 기사 수량의 폭증을 미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12〉 감염병별 보도 사실성

| 보도 사실성 | 사스 | 신종플루 | 에볼라 | 메르스 | 코로나19 | 전체 |
|-----------|-----------------|-----------------|----------------|-------------------|-----------------|-------------------|
| 사실 중심적 | 288(96.0) | 184(98.4) | 66(97.1) | 1,059(98.7) | 900(97.7) | 2,497(98.0) |
| 추측·예측 중심적 | 12(4.0) | 3(1.6) | 2(2.9) | 14(1.3) | 21(2.3) | 52(2.0) |
| 합계 | 300(100) | 187(100) | 68(100) | 1,073(100) | 921(100) | 2,549(100) |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은 감염병별로 살펴본 보도 사실성이다. 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이 사실 중심적이 2,497건(98%), 추측·예측 중심적이 52건

(2.0%)으로 감염병 종류에 상관없이 사실 중심적인 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감염병별 보도 사실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별로 살펴보면, 사스 관련 보도는 사실 중심적이 288건(96.0%), 추측·예측 중심적이 12건(4.0%)이었으며 신종플루는 사실 중심적이 184건(98.4%), 추측·예측 중심적이 3건(1.6%)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사실 중심적이 66건(97.1%), 추측·예측 중심적이 2건(2.9%)이었고, 메르스는 사실 중심적이 1,059건(98.7%), 추측·예측 중심적이 14건(1.3%)이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 당시는 사실 중심적 보도가 900건(97.7%), 추측·예측 중심적이 21건(2.3%)으로 나타났다. 사실 중심적 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감염병 시기는 메르스(98.7%) 때였으며,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사스(4.0%)였다.

〈표 13〉 감염병별 보도 방향성

| 보도 방향성 | 사스 | 신종플루 | 에볼라 | 메르스 | 코로나19 | 전체 |
|-----------|-----------------|-----------------|----------------|-------------------|-----------------|-------------------|
| 긍정 | 5(1.7) | 1(0.5) | 3(4.4) | 17(1.6) | 6(0.7) | 32(1.3) |
| 중립 | 264(88.0) | 176(94.1) | 56(82.4) | 889(82.9) | 842(91.4) | 2,227(87.4) |
| 부정 | 31(10.3) | 10(5.3) | 9(13.2) | 167(15.6) | 73(7.9) | 290(11.4) |
| 합계 | 300(100) | 187(100) | 68(100) | 1,073(100) | 921(100) | 2,549(100) |

Fisher's exact test: $p < .05$

다음은 감염병별 보도 방향성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13>과 같이 중립적인 논조의 보도가 2,226건(8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정이 290건(11.4%), 긍정이 32건(1.3%)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감염병별 보도방향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별로 살펴보면 사스 발생시점의 보도에서는 중립보도가 264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정보도가 31건(10.3%), 긍정보도가 5건(1.7%)이었다. 신종플루 당시에 중립적인 보도가 176건(9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정적인 보도가 10건(5.3%), 긍정보도가 1건(0.5%)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이슈 당시에는 중립보도가 56건(82.4%), 부정적인 논조의 보도가 9건(13.2%), 긍정보도가 3건(4.4%)이었으며 메르스 시점의 보도에서는 중립적인 보도가 889건(82.9%), 부정적인 보도가 167건(15.6%), 긍정보도가 17건(1.6%)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점의 보도 방향성은 중립적인 보도가 842건(91.4%), 부정적인 보도가 73건(7.9%), 긍정적인 논조의 보도가 6건(0.7%)이었다. 중립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신종플루(94.1%) 당시였으며, 부정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메르스(15.6%), 긍정적인 보도가 높았던 시기는 에볼라바이러스병(4.4%)이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 대상자가 급증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정부에게 감염자 발생 지역과 환자가 머문 병원 이름을 공개하라는 비판적 여론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보도가 급증하였다. 이 시기에 언론보도는 “초기 대응 실패”, “컨트롤 타워 부재”, “우왕좌왕 정부기관의 대응” 등을 지적한 기사들이 속출하였다.

다음은 감염병별로 언론보도 정보원 유형을 <표 14>와 같이 살펴 보았다. 사스 발생 시점의 보도에서 주요 활용된 정보원은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105건(2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62건(14.4%), 한국 전문가가 43건(10%), 한국 및 해외 언론이 34건(7.4%), 한국 및 해외 기업이 32건(7.4%), 세계시민과 공항 관련 관계자가 각각 25건(5.8%), 세계기구와 시민이 각각 21건(4.9%), 해외 전문가 15건(3.5%),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13건(3.0%), 자영자와 유학생이 각각 10건(2.3%), 공공기관 6건(1.4%), 한국 및 해외 경찰 4건(0.9%),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의심·

감염병 발생 초기의 언론보도 연구: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형, 메르스,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표 14〉 감염병별 정보원 유형

| 정보원 | 사스 | 신종플루 | 에볼라 | 메르스 | 코로나19 | 전체 |
|-----------------|-----------|----------|----------|------------|------------|-------------|
| 한국정부 및 지자체 | 105(24.4) | 82(30.6) | 20(14.8) | 595(34.8) | 459(29.9) | 1,261(30.9) |
| 한국 전문가 | 43(10.0) | 22(8.2) | 10(7.4) | 338(19.8) | 205(13.4) | 618(15.2) |
| 세계기구 | 21(4.9) | 28(10.4) | 27(20.0) | 36(2.1) | 44(2.9) | 156(3.8) |
| 해외정부 및 지자체 | 62(14.4) | 55(20.5) | 19(14.1) | 41(2.4) | 187(12.2) | 364(8.9) |
| 세계시민 | 25(5.8) | 16(6.0) | 9(6.7) | 19(1.1) | 65(4.2) | 134(3.3) |
| 해외 전문가 | 15(3.5) | 11(4.1) | 13(9.6) | 39(2.3) | 72(4.7) | 150(3.7) |
|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 1(0.2) | 7(2.6) | 1(0.7) | 57(3.3) | 9(0.6) | 75(1.8) |
|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 1(0.2) | 6(2.2) | 2(1.5) | 141(8.3) | 35(2.3) | 185(4.5) |
| 한국 및 해외 언론 | 34(7.9) | 24(9.0) | 17(12.6) | 17(1.0) | 87(5.7) | 179(4.4) |
| 한국 및 해외 기업 | 32(7.4) | 3(1.1) | 5(3.7) | 50(2.9) | 96(6.3) | 186(4.6) |
| 시민단체 | 0(0.0) | 0(0.0) | 2(1.5) | 7(0.4) | 3(0.2) | 12(0.3) |
|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 13(3.0) | 2(0.7) | 4(3.0) | 34(2.0) | 15(1.0) | 68(1.7) |
| 시민 | 21(4.9) | 10(3.7) | 2(1.5) | 130(7.6) | 107(7.0) | 270(6.6) |
| 자영업자 | 10(2.3) | 0(0.0) | 2(1.5) | 54(3.2) | 47(3.1) | 113(2.8) |
| 공항 관련 관계자 | 25(5.8) | 1(0.4) | 0(0.0) | 2(0.1) | 13(0.8) | 41(1.0) |
| 유학생 | 10(2.3) | 0(0.0) | 0(0.0) | 3(0.2) | 10(0.7) | 23(0.6) |
|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 1(0.2) | 0(0.0) | 1(0.7) | 21(1.2) | 11(0.7) | 34(0.8) |
| 공공기관 | 6(1.4) | 1(0.4) | 0(0.0) | 17(1.0) | 9(0.6) | 33(0.8) |
| 한국 및 해외 경찰 | 4(0.9) | 0(0.0) | 0(0.0) | 11(0.6) | 7(0.5) | 22(0.5) |
| 군 관계자 | 1(0.2) | 0(0.0) | 0(0.0) | 17(1.0) | 1(0.1) | 19(0.5) |
| 교육부 및 교육청 | 0(0.0) | 0(0.0) | 0(0.0) | 21(1.2) | 20(1.3) | 41(1.0) |
|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 0(0.0) | 0(0.0) | 0(0.0) | 44(2.6) | 17(1.1) | 61(1.5) |
| 종교단체 | 0(0.0) | 0(0.0) | 0(0.0) | 0(0.0) | 4(0.3) | 4(0.1) |
| 법조계 관계자 | 0(0.0) | 0(0.0) | 0(0.0) | 6(0.4) | 0(0.0) | 6(0.1) |
|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 0(0.0) | 0(0.0) | 0(0.0) | 2(0.1) | 4(0.3) | 6(0.1) |
| 기타 | 0(0.0) | 0(0.0) | 1(0.7) | 6(0.4) | 8(0.5) | 15(0.4) |
| 합계 | 430(100) | 268(100) | 135(100) | 1,708(100) | 1,535(100) | 4,076(100) |

multiple coding

추정환자·자가격리자, 군 관계자가 각각 1건(0.2%)이었다. 그 외 시민단체, 교육부 및 교육청,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기타 항목은 모두 0건(0.0%)이었다.

신종플루 발생 당시 언론보도의 정보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 및 지자체가 8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55건(20.5%), 세계기구가 28건(10.4%), 한국 및 해외 언론이 24건(9.0%), 한국 전문가가 22건(8.2%), 세계시민 16건(6.0%), 해외 전문가 11건(4.1%), 시민 10건(3.7%),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7건(2.6%), 한국 및 해외 기업 3건(1.1%),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2건(0.7%), 공항 관련 관계자와 공공기관이 각각 1건(0.4%)이었다. 그 외 시민단체, 자영업자, 의심·추정환자·격리환자, 한국 및 해외 경찰, 군 관계자, 교육부 및 교육청,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기타 항목은 모두 0건(0.0%)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시점에서 언론보도의 정보원 활용은 다른 감염병 시점과 달리 세계기구가 27건(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정부 및 지자체 20건(14.8%), 해외정부 및 지자체 19건(14.1%), 한국 및 해외 언론 17건(12.6%), 해외 전문가 13건(9.6%), 한국 전문가 10건(7.4%), 세계시민 9건(6.7%), 한국 및 해외 기업 5건(3.7%),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4건(3.0%),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시민, 자영업자가 각각 2건(1.5%),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가 각각 1건(0.7%)이었다. 그 외 공항 관련 관계자, 유학생, 공공기관, 한국 및 해외 경찰, 군 관계자, 교육부 및 교육청,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종교단체, 법조계 관계자,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 기타 항목은 모두 0건(0.0%)이었다.

다음으로 메르스 발생 시점의 정보원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595건(34.8%)으로 가장 많았다. 비율상으로 보더라도 5종

감염병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한국 전문가가 338건(19.8%),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141건(8.3%), 시민 130건(7.6%),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57건(3.3%), 자영업자 54건(3.2%), 한국 및 해외 기업 50건(2.9%),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44건(2.6%), 해외정부 및 지자체 41건(2.4%), 해외 전문가 39건(2.3%), 세계기구 36건(2.1%),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34건(2.0%),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와 교육부 및 교육청이 각각 21건(1.2%), 세계시민 19건(1.1%), 한국 및 해외 언론, 공공기관, 군 관계자가 각각 17건(1.0%), 한국 및 해외 경찰 11건(0.6%), 시민단체 7건(0.4%), 법조계 관계자와 기타가 각각 6건(0.4%), 유학생 3건(0.2%). 공항 관련 관계자,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가 각각 2건(0.1%)이었으며 종교단체는 0건(0.0%)이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점의 언론보도 정보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459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 전문가가 205건(13.4%), 해외정부 및 지자체가 187건(12.2%), 시민 107건(7.0%), 한국 및 해외 기업 96건(6.3%), 한국 및 해외 언론 87건(5.7%), 해외 전문가 72건(4.7%), 세계시민 65건(4.2%), 자영업자 47건(3.1%), 세계기구 44건(2.9%),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 35건(2.3%), 교육부 및 교육청 20건(1.3%),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17건(1.1%), 한국 및 해외 학교 관계자 15건(1.0%), 공항 관련 관계자 13건(0.8%), 의심·추정환자·자가격리자 11건(0.7%), 유학생 10건(0.7%),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과 공공기관이 각각 9건(0.6%), 기타 8건(0.5%), 한국 및 해외 경찰 7건(0.5%), 종교단체와 기부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가 각각 4건(0.3%), 시민단체 3건(0.2%), 법조계 관계자는 0건(0.0%)이었다. 다른 감염병 당시보다 코로나19 당시 기사에서 정보원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의 코로나19 감염병이 직업과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연구문제 2.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다음은 언론사별 프레임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5>와 같이 정보 프레임이 1,489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책 프레임 743건(17.1%), 사회영향 프레임 644건(14.8%), 책임 프레임 385건(8.9%), 갈등 프레임 271건(6.2%), 경제 프레임 212건(4.9%), 설득 프레임 205건(4.7%), 공포 프레임 204건(4.7%), 희망적 프레임 87건(2.0%), 인간흥미 프레임 74건(1.7%), 예방 프레임 36건(0.8%) 순이었다.

이처럼 프레임의 내용분석 결과를 보면 정보 프레임과 정책 프레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감염병 관련 정보, 감염병 발생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방역 대책 등을 강조하는 보도 등 감염병 확산 위기 속에서 정부 정책과 지원 등을 다룬 기사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언론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동향과 정부 대책에 보다 집중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단계로 확산 및 전개되어 나가는 감염병의 특성상 감염병 관련 상황 업데이트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다양한 정책에 더욱 주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하지만 정부 및 기관이 잘못된 대응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우려 상황은 어떠한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감시하고 이끌어 나가는 보도는 부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프레임, 설득 프레임, 책임 프레임의 비중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염병이 발생한 나라와 확진자에 대한 프레임을 언론이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실제 언론에서 감염병 첫 발생국가와 확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공포와 갈등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정보 프레임이 368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영향 프레임이 190건(15.9%), 정책 프레임이 189건(15.8%), 책임 프레임 108건(9.0%), 갈등 프레임 5건 90건(7.5%), 경제 프레임 80건(6.7%), 설득 프레임 51건(4.3%), 공포 프레임 42건(3.5%), 인간흥미 프레임 33건(2.8%), 희망적 프레임 26건(2.2%), 예방 프레임 20건(1.7%)이었다.

한겨레도 정보 프레임이 314건(3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정책 프레임 180건(18.4%), 사회영향 프레임 146건(14.9%), 책임 프레임 105건(10.7%), 경제 프레임 67건(6.8%), 갈등 프레임 61건(6.2%), 설득 프레임 36건(3.7%), 공포 프레임 32건(3.3%), 희망적 프레임 17건(1.7%), 인간흥미 프레임 13건(1.3%), 예방 프레임 9건(0.9%)이었다.

KBS의 경우 정보 프레임이 379건(35.4%), 정책 프레임 204건(19.1%), 사회영향 프레임 161건(15%), 책임 프레임 78건(7.3%), 설득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이 각각 60건(5.6%), 갈등 프레임 56건(5.2%), 경제 프레임 33건(3.1%), 희망적 프레임 22건(2.1), 인간흥미 12건(1.1%), 예방 프레임 5건(0.5%)이었다.

SBS는 정보프레임이 428건(38.3%)으로 언론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책 프레임이 170건(15.4%), 사회영향 프레임 147건(13.3%), 책임 프레임 94건(8.5%), 공포 프레임 70건(6.3%), 갈등 프레임 64건(5.8%), 설득 프레임 58건(5.3%), 경제 프레임이 32건(2.9%), 희망적 프레임이 22건(2.0%), 인간흥미 프레임이 16건(1.5%), 예방 프레임 2건(0.2%) 순이었다.

조선일보는 한겨레, KBS, SBS와 달리 정보 프레임 다음으로 사회영향 프레임이 두 번째로 높은 보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 역시 한겨레, KBS, SBS는 갈등 프레임인 반면 조선일보는 경제 프레임이었다. 뿐만 아니라 SBS의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설득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에 대한 비율이 다

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사와 방송사별로 비교해보면 신문사의 경우 방송사에 비해 경제 프레임 유형의 비중이 높았고 방송사의 경우 설득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이 신문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문보도에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위기와, 자영업자들의 고통, 구직난, 실직자의 어려운 실정, 우려되는 경제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등에 주목한 반면, 방송보도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포프레임이 11.9%를 차지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낙인, 차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두 신문사의 프레임 유형을 비교해보면 모두 정보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위 6번째까지의 프레임 유형을 보면 조선일보는 정보 프레임, 사회영향 프레임, 정책 프레임, 책임 프레임, 갈등 프레임, 경제 프레임이었던 반면 한겨레는 정보 프레임, 정책 프레임, 사회영향 프레임, 책임 프레임, 경제 프레임, 갈등 프레임 순이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겨레에 비해 사회영향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을, 한겨레는 정책 프레임과 경제 프레임을 더욱 비중 있게 사용하였다. 즉, 보수신문이 진보신문보다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 및 문화 행사 등과 같은 국제사회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기사와 감염병 상황에서 나타나는 법적 분쟁과 도덕적 비난, 수용과정에서는 갈등문제 등을 다룬 기사가 많았다. 이와 달리 진보신문인 한겨레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다양한 정책 입안에 대한 이야기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와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다.

KBS와 SBS 각 방송사를 비교해보면 마찬가지로 모두 정보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 KBS는 정보 프레임, 정책 프레임, 사회영향 프레임, 책임 프레임, 설득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 갈등 프레임, 경제 프레임, 희망적 프레임, 인간흥미 프레임, 예방 프레임 순이었으며 SBS는 정보 프레임, 정책 프레임, 사회영향 프레임, 책임 프레임, 공포 프레임,

갈등 프레임, 설득 프레임, 경제 프레임, 희망적 프레임, 인간흥미 프레임, 예방 프레임 순이었다. KBS는 SBS에 비해 설득 프레임, 경제 프레임이, SBS는 KBS에 비해 공포 프레임, 책임 프레임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공영방송 성격의 KBS가 민영방송 SBS 보다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변화와 손실에 대한 기사와 실생활 속에서의 방역 협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설득적 기사가 많았다는 것을 뜻하며, 반면 민영방송 성격의 SBS는 정부와 방역 당국 등을 책임 주체로 한 보도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보도 형태의 기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언론사별 프레임 유형

| 프레임 | 조선일보 | 한겨레 | KBS | SBS | 전체 |
|-----------|-------------------|-----------------|-------------------|-------------------|-------------------|
| 정책 프레임 | 189(15.8) | 180(18.4) | 204(19.1) | 170(15.4) | 743(17.1) |
| 정보 프레임 | 368(30.7) | 314(32.0) | 379(35.4) | 428(38.8) | 1,489(34.2) |
| 경제 프레임 | 80(6.7) | 67(6.8) | 33(3.1) | 32(2.9) | 212(4.9) |
| 사회영향 프레임 | 190(15.9) | 146(14.9) | 161(15.0) | 147(13.3) | 644(14.8) |
| 갈등 프레임 | 90(7.5) | 61(6.2) | 56(5.2) | 64(5.8) | 271(6.2) |
| 책임 프레임 | 108(9.0) | 105(10.7) | 78(7.3) | 94(8.5) | 385(8.9) |
| 설득 프레임 | 51(4.3) | 36(3.7) | 60(5.6) | 58(5.3) | 205(4.7) |
| 공포 프레임 | 42(3.5) | 32(3.3) | 60(5.6) | 70(6.3) | 204(4.7) |
| 예방 프레임 | 20(1.7) | 9(0.9) | 5(0.5) | 2(0.2) | 36(0.8) |
| 인간흥미 프레임 | 33(2.8) | 13(1.3) | 12(1.1) | 16(1.5) | 74(1.7) |
| 희망적 프레임 | 26(2.2) | 17(1.7) | 22(2.1) | 22(2.0) | 87(2.0) |
| 합계 | 1,197(100) | 980(100) | 1,070(100) | 1,103(100) | 4,350(100) |

multiple coding

연구문제 2-1. 감염병별로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다음은 감염병별 언론보도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6>과 같이 정보 프레임이 1,489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책 프레임 743건(17.1%), 사회영향 프레임 644건(14.8%), 책임 프레임 385건(8.9%), 갈등 프레임 271건(6.2%), 경제 프레임 212건(4.9%), 설득 프레임 205건(4.7%), 공포 프레임 204건(4.7%), 희망적 프레임 87건(2.0%), 인간흥미 프레임 74건(1.7%), 예방 프레임 36건(0.8%)으로 확인되었다.

감염병별로 프레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스 시점에서는 정보 프레임이 135건(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책 프레임이 87건(18.2%), 사회영향 프레임이 83건(17.3%), 경제 프레임이 49건(10.2%), 공포 프레임이 32건(6.7%), 갈등 프레임이 30건(6.3%), 책임 프레임이 23건(4.8%), 희망적 프레임이 14건(2.9%), 설득 프레임이 11건(2.3%), 인간흥미 프레임이 10건(2.1%), 예방 프레임이 5건(1.0%)이었다.

신종플루 관련 프레임 유형은 마찬가지로 정보 프레임이 11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공포 프레임이 56건(16.9%), 정책 프레임이 46건(13.9%), 사회영향 프레임이 41건(12.3%), 희망적 프레임 28건(8.4%), 갈등 프레임 10건(3.0%), 인간흥미 프레임 9건(2.7%), 책임 프레임 8건(2.4%), 설득 프레임 7건(2.1%), 경제 프레임 5건(1.5%), 예방 프레임 3건(0.9%)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유형은 정보 프레임이 36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프레임 29건(25.4%), 사회영향 프레임 19건(16.7%), 공포 프레임 12건(10.5%), 책임 프레임 9건(7.9%), 희망적 프레임 4건(3.5%), 갈등 프레임과 인간흥미 프레임이 각각 2건(1.8%)이었으며 경제 프레임 1건(0.9%), 설득프레임과 예방

프레임은 0건(0.0%)이었다.

메르스 관련 보도 프레임 유형에서는 정보 프레임이 704건(40.1%)으로 5종 감염병 가운데 정보 프레임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정책 프레임이 256건(14.6%), 책임 프레임이 216건(12.3%), 사회영향 프레임 165건(9.4%), 갈등 프레임 123건(7.0%), 설득 프레임 94건(5.4%), 경제 프레임 62건(3.5%), 공포 프레임 50건(2.9%), 인간흥미 프레임 38건(2.2%), 희망적 프레임 31(1.8%), 예방 프레임 15건(0.9%)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보도 프레임 유형은 정보 프레임이 495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영향 프레임이 336건(20.1%), 정책 프레임이 325건(19.4%), 책임 프레임 129건(7.7%), 갈등 프레임 106건(6.3%), 경제 프레임 95건(5.7%), 설득 프레임 93건(5.6%), 공포 프레임 54건(3.2%), 인간흥미 프레임 15건(0.9%), 예방 프레임 13건(0.8%), 희망적 프레임 10건(0.6%)으로 확인되었다.

신종플루의 경우, 다른 4종의 감염병과 비교 했을 때, 초기 언론보도에서 위험성을 강조하며 공포심을 확산시켰으나 예방프레임이 3건(0.9%)으로 가장 적었다. 결과적으로 다른 4종의 감염병에 비해 신종플루는 치명률이 약 0.056%으로 가장 낮고, 치료제를 통한 실질적인 일상 회복이 다소 빠른 시간 가능해졌으며, 현재 계절 독감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에 비해 초기 언론보도에서 정부가 추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1,000만 명이 감염돼 2만 명 사망 가능성”을 대서특필함으로써 위험성과 공포심을 확산시켰다. 반면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에 대한 예방프레임이 3건(0.9%)으로 가장 적었다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을 강화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적 해석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코로나19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SBS 뉴스에서는 1월 29일 “신종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중국 전역으로 공포가 번져 우한은 패닉 상태다”라고 보도했으며 마찬가지로

〈표 16〉 감염병별 프레임 유형

| 프레임 | 사스 | 신종플루 | 에볼라 | 메르스 | 코로나19 | 전체 |
|-----------|-----------------|-----------------|-----------------|-------------------|-------------------|-------------------|
| 정책 프레임 | 87(18.2) | 46(13.9) | 29(25.4) | 256(14.6) | 325(19.4) | 743(17.1) |
| 정보 프레임 | 135(28.2) | 119(35.8) | 36(31.6) | 704(40.1) | 495(29.6) | 1,489(34.2) |
| 경제 프레임 | 49(10.2) | 5(1.5) | 1(0.9) | 62(3.5) | 95(5.7) | 212(4.9) |
| 사회영향 프레임 | 83(17.3) | 41(12.3) | 19(16.7) | 165(9.4) | 336(20.1) | 644(14.8) |
| 갈등 프레임 | 30(6.3) | 10(3.0) | 2(1.8) | 123(7.0) | 106(6.3) | 271(6.2) |
| 책임 프레임 | 23(4.8) | 8(2.4) | 9(7.9) | 216(12.3) | 129(7.7) | 385(8.9) |
| 설득 프레임 | 11(2.3) | 7(2.1) | 0(0.0) | 94(5.4) | 93(5.6) | 205(4.7) |
| 공포 프레임 | 32(6.7) | 56(16.9) | 12(10.5) | 50(2.9) | 54(3.2) | 204(4.7) |
| 예방 프레임 | 5(1.0) | 3(0.9) | 0(0.0) | 15(0.9) | 13(0.8) | 36(0.8) |
| 인간흥미 프레임 | 10(2.1) | 9(2.7) | 2(1.8) | 38(2.2) | 15(0.9) | 74(1.7) |
| 희망적 프레임 | 14(2.9) | 28(8.4) | 4(3.5) | 31(1.8) | 10(0.6) | 87(2.0) |
| 합계 | 479(100) | 332(100) | 114(100) | 1,754(100) | 1,671(100) | 4,350(100) |

multiple coding

로 2020년 2월 7일 조선일보에서는 “우한폐렴 공포가 확산되면서 서울 및 전국 곳곳이 유행도시처럼 변해간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글로벌 초연결성의 확장과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기술 융복합 혁명으로 인해 사람-사물-환경 간의 상시 연결성, 상호작용성 등이 대폭 강화된 21세기에는 과학기술 문명 발전의 부작용이자 역기능으로 감염병, 환경오염, 환경 파괴, 테러 등 부정적인 현상들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보다 수 백 배 또는 수 천 배 이

상의 과급력과 파괴력을 지닌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사회의 공통 현안이 된 감염병의 극복과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자원 중 하나인 언론 보도의 양상과 특성에 대해 초기 한 달 간에 초점을 맞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반적인 결론 및 함의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사 심층성에서는 언론사와 감염병별 전반적으로 감염병 대응 방식에 대한 기사 분석을 가장 심층적으로 다루고 원인 분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의 언론 보도는 대응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고, 신종플루는 사건발생,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영향분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발생이 본격화 되면서 모든 언론사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과 방역대책으로 감염병에 대응할지를 살펴보는 대응분석에 대한 내용과, 정부의 잘못된 방역을 꼬집는 기사도 자연스레 늘어났다. 감염병 발생 이래로 시간이 지나 확산정도와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면서 이와 같은 보도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염병과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안이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나름대로 타당하고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감염병의 부정적인 영향과 발생 빈도가 미래에 더욱 강력하고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보도 형태에만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정보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 공공 기관, 지자체 등의 대응 방식의 장단점, 개선점, 보완점 등을 심도 있게 보도해야 한다.

보도 심층성의 또 다른 요인인 ‘취재 심층성’에서는 일반 기자 취재가 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전문 기자의 취재는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보니 단순하게 사실을 전달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형태가 많았으며, 단계별 정부의 대응과 지침, 정부 정책 평가 등과 같은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심층적 맥락에서의 뉴스 보도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급격히 개선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인류 사회의 새로운 치명적인 위협으로 부각된 감염병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전문 기자의 비중을 늘리고 의학전문기자를 양성하여 취재 심층성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추가적으로 명확한 감염병 발생 초기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보도준칙에서 나아가 적어도 감염병 발생 후 한 달간은 일일 기사 건수의 과반수이상인 의학전문기자가 직접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을 만들어야 하겠다.

보도 특성의 또 다른 구성 요인인 ‘보도 사실성’을 살펴보면, 신문사와 방송사 모두 사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감염병별로도 종류와는 상관없이 추측성 보도가 사실 중심적 보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메르스 시기에 사실 중심적 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스 시기에는 반대로 추측·예측 중심적인 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메르스 언론보도의 특성과 양상을 분석한 연구(김병진, 2015; 김용, 2016; 박단비 외, 2018; 김병철, 2019)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보도 사실성’은 공식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간 사실 중심적인 보도인지, 비공식적인 자료와 단순 추측, 전망으로 작성된 보도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게 되면 감염병이 최초 발견한 지역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정보성 기사와 정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응, 예방책 등에 대한 보도가 많아진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보도는 감염병 발생 초기보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감염병 상황이 긴박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형태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염병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거나,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이야기, 추측 기사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감염병 발생 초기의 언론 보도 형태가 사실 중심적인 기사들이 많다는 것은 감염병 보도에 있어 정확하고 사실적인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나, 단순 확진자 발생 수치, 중계식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겠다. 아울러 무조건 확인된 것만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한다면 의료진이나 방역 당국 등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실제적인 사실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짚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 될 수 있기에 감염병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역할을 정부와 언론이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또한, 감염병이 새롭게 발생할 때 마다 고질적으로 추측성 기사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감염병 보도준칙의 대한 내용과도 어긋난 것으로 보이며 약 20년 동안 감염병 보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감염병 보도를 위해서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교육, 윤리의식 등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가짜뉴스 모니터링과 팩트체크 시스템을 활발하게 실행해 나가 효율적으로 가짜뉴스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야 하겠다.

‘보도 방향성’에서는 중립적인 논조로 보도한 기사들이 중추를 이루는 가운데, 시기별로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 비중이 높아지거나,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간간히 확인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중립적 관점의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감염병별로 살펴보면, 신종플루 시기에 중립 보도 비율이 가장 높았고, 메르스 시기에는 부정 보도의 비율이, 에볼라바이러스병 시기에는 긍정 보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

과만을 가지고 언론이 객관성과 중립적인 자세의 보도를 했다고만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위기상황에서 뚜렷하고 분명한 언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책의 허점과 미흡한 부분들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 지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보원 유형에서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모두 한국정부 및 지자체가 가장 많은 반면,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세계기구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정부 및 지자체, 한국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감염병의 속성에 합당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문사와 방송사가 활용한 언론보도 정보원 유형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신문사의 경우 해외정부 및 지자체, 한국 및 해외 언론, 한국 및 해외 기업의 순서였지만, 방송사의 경우 시민, 해외정부 및 지자체, 확진자 방문 기관 및 업체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사와 방송사의 뉴스 제작 메카니즘 및 시스템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속보성을 위한 생중계식 보도, 비슷한 장면 위주의 단순보도 등은 아닌지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정제된 보도에서 벗어나 신문사와 방송사의 긴밀한 협력, 공조 하에 각자가 보유한 제작 인력과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심층 기사들을 제작하는 방향도 필요하겠다.

프레임에서는 감염병 종류와 상관없이 정보 프레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등은 정책 프레임이 두 번째로 많았고, 신종플루는 공포 프레임이, 코로나19는 사회영향 프레임이 각각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또한 감염병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언론사들은 정보 프레임과 정책 프레임, 사회영향 프레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와

같은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국민들에게 감염병 발생 현황 및 동향, 방역 대책, 사회 또는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사의 경우 경제 프레임 유형의 비중이 높고 방송사의 경우에는 설득 프레임과 공포 프레임이 신문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공론장의 역할과 사회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이러한 공포심 조장 보도를 한다는 것은 곧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것이므로 더욱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최근 20여 년간 5종 감염병 발생 후 한 달 간의 초동 대응 과정의 한국 언론보도의 보도 양상, 특성, 프레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간에 감염병 관련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1종 감염병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거나, 2종 감염병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1~2종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 시기인 수 년 간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만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여 감염병이 국지전이나 테러 등 다른 유형의 재난들에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소리 없는 재난’이라는 사실이 부각된 현시점을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5종의 감염병에 대한 포괄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감염병이 전파·확산된 20년의 비교적 긴 시간을 대상으로 한국 언론 보도의 중장기적 흐름과 추세를 통시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감염병 언론 보도의 범위를 확장하여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21세기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20세기와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연구(박기수, 2020; 정혜선, 2020)등에서 확장된 문제의식을 실제 연구 과정에서 구현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겠다. 나아가 심각한 사회위기를 초래 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것은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다시 유행 했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도 위험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 번째로 본 연구의 연구범위이다. 본 연구의 분석기는 해당 감염병 첫 기사를 기준으로 한 달간 보도된 기사 전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초기 한 달의 보도가 기사의 심층성과 사실성 등의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을지에 한계가 있다. 또한 감염병별로 확산기, 유행기 등의 시점과 퍼져나가는 속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동일한 시점으로 비교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추후 앞서 종식이 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와 함께 코로나19 역시도 발생에서 종식까지 전 기간을 연구대상으로 확장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의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 모두를 분석하는 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감염병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1인 미디어, 소셜미디어, SNS 등에 대한 의존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일간지에서는 속보성을 강조하는 즉시 기사화뿐만 아니라 보강 및 심층 취재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보다 깊이 있게 담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속보성 매체인 소셜미디어와 SNS, 저속형 뉴스매체로 볼 수 있는 종합일간지와 비교 분석, 나아가 각 매체에서 정부 보도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20). 코로나19 보도를 통해 본 사회적 재난을 보도하는 언론의 향후 과제. <言論仲裁>, 155권, 86-93.
- 고대유·박재희 (2018).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연구: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7권 1호, 243-280.
- 고영철 (2012). 한 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의 보도방식 비교: 기사의 길이, 리드 및 인용구 서술방법, 인용구의 수, 제목의 표현방식 등. <언론과학연구>, 12권 3호, 37-78.
- 구교태 (2014). 재난에 관한 위협이 미디어 의존과 재난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1권 3호, 128-147.
- 김도경·윤영민 (2015). 방송은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 광고총량제, 700MHz 대역 주파수 재분배, 수신료 인상 보도 내용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74권 6호, 109-135.
- 김동규 (2002). 한국 언론이 위기보도 그 실상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15권 1호, 139-156.
- 김봉덕 (2009). 지역언론의 뉴스품질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 지역군형발전 보도에 관한 다양성, 심층성, 객관성 분석.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학위논문.
- 김성진·박경우 (2009). 국가재난사고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 형태 연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3권 2호, 5-41.
- 김영욱 (2006). 위험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론>, 2권 2호, 192-232.
- 김영욱·이현승·장유진·이혜진 (2015). 언론은 미세먼지 위협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미세먼지 위협보도 프레임과 정보원 분석.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121-156.

김옥태·김규찬 (2010).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의 예방위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3자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11권 7호, 51-77.

김 용 (2016). 국내 미디어의 메르스 보도 고찰. <의료커뮤니케이션>, 11권 1호, 39-50.

김위근·황용석 (2020). <한국 언론과 포털 뉴스 서비스>. 서울: 한국언론재단.

남재일 (2005). 한국 기자의 사건중심보도 아비투스. <한국언론학회 2005년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67-174.

목은영·이준웅 (2014).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견해반영, 관점 균형성이 뉴스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8권 4호, 428-456.

목정민·진달용 (2014). 과학적 불확실성하에서 신문기자들의 선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8권 6호, 119-150.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340.

박경숙·이관열 (2013). 매체 이용과 매체 신뢰 및 공정성 인지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52권 2호, 305-336.

박기수 (2011). 4대강 사업 뉴스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 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 등 3개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5-26.

박기수·이귀옥·최명일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신종 감염병 보도 분석: 다제내성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권 2호, 343-351.

박성희 (2004). 한국 사회면 비교분석. 서울: 미디어 연구소.

박이스리 (2021).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 연구.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9권 2호, 61-125.
- 박재영 · 이완수 (2007).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韓美) 신문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439-468.
- 박주현 (2007).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의 뉴스담론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해찬 골프사건”과 “이명박 테니스사건”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권, 108-143.
- 박희봉 · 이연수 · 이해수 (2021). 과학적 불확실성과 공영방송, 재난의 공론장: COVID-19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5권 1호, 71-114.
- 백혜진 (2017). 전략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소통: 변화하는 공중의 역할과 미디어 환경. <대한의사협회지> 60권 4호, 306-313.
- 손달임 (2020).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의 언어 분석 - 헤드라인에 반영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권, 137-166.
- 손영준 · 홍주현 (2019).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신문 사설 프레임 비교 분석: 경향 · 한겨레 · 조선 · 동아 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치정보학보>, 22권 3호, 175-210.
- 송용희 (2005).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회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80-104.
- 송해룡 · 김찬원 · 김원제 (2014). 공중의 사이버범죄 위협특성과 공포감이 결과적 심각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2권, 129-156.
- 송해룡 · 조항민 (2015). 국내 언론의 질병관련 위험보도에 관한 특성 연구: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방송뉴스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1권 6호, 45-68.
- 심재웅 (2011). 포터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규제에 대한 탐색적 고찰: 포털의 법적 성격과 규제의 시각, <한국사회과학연구>, 31권 2

호, 105-125.

안도현 (2022). 펜데믹 상황에서 지역 언론의 해결지향 저널리즘 역할 탐색. <2022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제주언론학회 공동세미나 발제집>, 11-22.

양정혜 (2010). 위험사회의 의미 구성하기. <정치커뮤니케이션>, 17호, 169-212.

오누리 (2011). 재해보도에 대한 방송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19-321.

오누리 · 김은이 (2012). 북한에 대한 방송뉴스 내용분석: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에 관련한 KBS와 SBS 저녁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87-123.

오윤경 · 류현숙 · 허준영 · 김황열 · 김대훈 (2020). 코로나19 감염증 사례로 본 감염병 재난 대응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87호, 1-22.

우지숙 · 최정민 (2015). 공기업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5개 일간지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행정論叢> 53권 2호 315-343.

유선영 (1995). 객관주의 100년의 형식화 과정. <언론과 사회>, 10권, 86-128.

유승관 (2014). 외국의 재난보도 기준 및 보도사례. <언론중재>, 131호, 18-27.

유재웅 · 조윤경 (2012). 자연재난 보도에서 공식/비공식 정보원 이용에 관한 연구: 시민제작 콘텐츠 이용정도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권 3호, 67-84.

유진솔 (2015). 갑을논란 보도의 공정성과 심층성에 관한 연구: 조직의 위기 책임성 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규 · 이예리 (2012). 국내 신문의 가축 전염병 위험 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제역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

- 과학연구>, 12권 2호. 378-414.
- 이재경 (2006). 한미 신문의 대통령 취재관행 비교. <언론과 사회>, 14권 4호, 37-69.
- 이화행 (2012). TV뉴스의 제19대 총선보도 분석 - KBS <뉴스9>와 SBS의 <8뉴스> 비교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7호, 301-331.
- 임연희 (2015).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25권 4호, 179-201.
- 장슬기 (2020.12.14.). 코로나 감염병 보도준칙 ‘공포’ ‘패닉’ 쓰지 말자고 했는데.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66>
- 전병규 · 조민경 · 임현수 (2017). 텔레비전 의존이 위기인식에 미치는 영향: 98년 홍수 위기상황을 중심으로. <사회융합연구>, 1권 3호, 19-28.
- 정의철 (2022). 갈등 중심 감염병 보도의 문제와 대안: ‘해결지향 저널리즘’의 가능성 모색. <한국방송학회 2022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집>. 37-60.
- 조경숙 · 한균태 (2010). 한국 신문의 공정성에 대한 고찰: 미디어관련법 개정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36권 3호. 133-165.
- 주영기 · 유명순 (2011).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5호. 30-54.
- 최은비 · 김효숙 (2011). 언론보도 어조와 관여 유형이 공중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15권 1호, 135-168.
- 한동섭 · 김형일 (2005). 원자력 정책과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산업> 25권 4호. 39-48.
- Altschull, H. (1984). Agents of Power: The Role of the News Media in

- Human Affairs. New York: Longman. 강상현, 운영철 역. 1993. 지배 권력과 제도 언론: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역할과 쟁점. 서울: 나남.
- Anderson, R. M., Heesterbeek, H., Klinkenberg, D., & Hollingsworth, T. D. (2020). How will country-based mitigation measures influence the course of the COVID-19 epidemic?. *The Lancet*, 395(10228), 931-934.
- Ball-Rokeach, S. J. and DeFleur, M. L.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 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1), 3-21
- Ball-Rokeach, S. J. (1985). The origins of individual media system dependency: A sociological framework. *Communication Research*, 12(4), 485-510.
- Barnhurst, K. G. & Mutz, D. (1997). American Journalism and the Decline in Event-Centered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47(4), 27-52.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홍성태 역 (200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 Coombs, W. T. (1999). *On-going crisis communications*, Newbury Glik, D. C. (2007). Risk communication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Annu. Rev. public health*, 28, 33-54.
- Chipidza, W., Akbaripourdibazar, E., Gwanzura, T., & Gatto, N. (2021). Topic Analysis of Traditional and Social Media News Coverage of the Early COVID-19 Pandemic and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Communication. *Disaster Medicine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1-8. doi:10.1017/dmp.2021.65
- Gamson, W. A., & Stuart, D. (1992, March). Media discourse as a symbolic contest: The bomb in political cartoons. In *Sociological Forum*, 7(1), 55-86.
- Gerbner, G. (1969). Dimensions of Violence in Television Drama. In R. K. Baker & S. J. Ball(eds.), *Violence in the Media*. Staff report to

- the 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Violence.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311-340.
- Glik D C. (2007). Risk Communication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33-54.
- Hallahan, K. (1999). Seven models of framing: Implications for public
rela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1(3), 205-242.
- Lerbinger, O. (1997). The crisis manager: Facing risk and responsibilit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 A. Edwards (2002), "The Moderator as an Emerging Democratic
Intermediary: The Role of the Moderator in Internet Discussions about
Public Issues," Information Policy, 7(1), 3-20.
- Rich, C. (1994). Writing and reporting news: A coaching metho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hoemaker, P. J., Reese S. D. (1995).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김원용 (역) (1997). <매스미디어 사회학>. 서울:
나남.
- Signorielli, N., & Moragan, M. (1990). cultivation analysis: New directions
in media effects research. Nowbury Park, CA: Sage.
- Smith, R. D. (2006). Responding to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lessons from SARS on the role of risk perception,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Social science & medicine, 63(12), 3113-3123.
- T. A. van Dijk. (1988a).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ERA.
- T. A. van Dijk. (1988b). News analysis: Case studies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news in the press. Hillsdale, NJ: ERA.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WHO (2005). *The World Health Report 2005 Make Every Mother and Child Count*.

최초 투고일: 2022년 05월 31일

논문 수정일: 2022년 07월 06일

게재 확정일: 2022년 07월 18일

감염병 발생 초기의 언론보도 연구: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ess Coverage in the Early Stages of Infectious Diseases: SARS, H1N1, EVD, MERS, COVID-19

Jin, Myeongji

(Lecturer,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Jeju National University)

Park, Kyongsuk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a reports during the first month after the outbreak of five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SARS, H1N1, Ebola virus diseas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an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We set the analysis period on the KBS News 9 (www.news.kbs.co.kr) and SBS News 8 (www.news.sbs.co.kr) websites to find related content, selecting only article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through replay and scriptor services. In total, 2,549 news articles were finally selected through this process. Fir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edia company's reporting on infectious diseases, all companies focused the most on response analysis (1,309, 42.5%) and the least on cause analysis (379, 12.3%). In addition, regarding the in-depth coverage of each media company, the number of was the largest, with only 262 articles (10%)

professional reporters, a relatively small number. Looking at the factual nature of the report, both newspapers and broadcasters tried to report on a fact-centered basis. In terms of reporting direction, 2,226 reports (87.4%) of neutral tone were the most, and more negative tone (290, 11.4%) were reported than positive tone (32, 1.3%). In the type of information source, the Kore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1,259, 31.1%) were most frequently used, followed by Korean experts (615, 15.2%). Looking at the frame types of Ron Report, information frames (1,489, 34.2%) were the most common, and both newspapers and broadcasters used the least prevention frames. Newspaper companies had a high proportion of economic frame types, and broadcasters had high persuasion frames and horror frames. Since encouraging public worry in early media coverage of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is not desirable, a press frame should be developed to discourage conjecture and exaggeration and advocate sensible response and prevention activities.

Key words : Infectious diseases, pandemic, media dependence, news frame